중생 마음 치유하고 희망 전해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⑲ 별과 신선, 수성노인(壽星老人)

'별[星, Star]'에 대한 신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다. 기독교의 동방박사(東方博士)는 동쪽 별을 나침반 삼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구간을 찾을 수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별로 앞날을 예측하는 점성술(占星術)이 유행했다. 이것이 바로 열두 별자리로 이뤄진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 Zodiac)'으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십이지(十二支)로 발전한다. 지금이야 MBTI로 성격을 분석하는 게 보편화됐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신의 별자리와 띠로 성격과 운세를 알아보는 문화가 크게 유행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땠을까? 물론, 불교문화에서도 별은 신성시됐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다. '북극성(北極星)'이 변화한 치성광여래는 인도 점성신앙(占星信仰) 속 '구요(九曜)'라는 신에서 유래된 부처님으로, 중생들의 수명과 장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치성광여래 곁에는 수많은 권속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마치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높은 정수리에 흰 수염을 휘날리는 '수성노인(壽星老人)'이다. 불교문화에 등장하는 수성노인은 화려한 보관과 의상 차림의 권속과는 달리 작달막한 키와 누더기 도포만을 걸친 다소 허름한 차림새다. 그렇다면 불교문화에 등장하는 수성노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별에서 태어난 신선

'남극성(南極星, Canopus)'에서 탄생한 수성노인은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수노인(壽老人)', '수성(壽星)'으로도 불린다. 여기서 남극성은 고대 동양의 천문관인 '이십팔수(二十八宿)'에 소속된 별인데 동양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했다.

남극성은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 최초로 언급돼 있다. 기록에는 "낭성 근처에 큰 별이 있어 남극노인이라 한다. 노인이 보이면 나라가 무사하고 보이지 않으면 군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행운의 상징인 남극성이 국가의 안녕까지 가져다 주는 개념으로 확산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간이 흘러 당(唐)나라에 이르면 황제의 장수를,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영락궁 삼청전 벽화 중 수성노인(중국 원대 14세기).


서울 화계사 치성광여래도에 표현된 수성노인(조선 1861년, 가평 현등사).

동양서 드물게 관찰돼 행운의 상징으로
中 원대 이미지 정착, 잡극·미술 표현
〈삼국유사〉 기록·조선代 그림 다수 남아
치성광여래와의 조합, 희망과 장수 기원

수성노인 이미지의 시작

별 자체로만 여겨지던 수성노인은 중국 송(宋)나라부터 모습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북송(北宋) 시기에 편찬된 미술 해설집 〈선화화보(宣和畫譜)〉 목록 가운데 수성노인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록만 남아있을 뿐 당시 제작된 회화자료는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

이에 학계에서는 바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대만 국립박물관 소장 수성노인도와 원(元)나라 때 제작된 도교 미술을 통해 당시 모습을 유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교 사원인 영락궁(永樂宮) 벽화에는 별자리를 상징하는 신선들이 표현돼 있는데 여기서 수성노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모습은 높은 정수리에 수염을 휘날리며 불교 지물인 여의(如意)를 든 노인 형상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성노인 이미지가 늦어도 원나라쯤에는 정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성노인은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등장한다. 중국 전통 오페라인 잡극(雜劇)에는 도교와 관련된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수성노인 역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유기(西遊記)〉에는 "긴 머리와 큰 귀에 키가 작고 남극 방위에 있기에 수노인이라 칭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저팔계가 수성노인을 향해 "살찐 늙은이!" 혹은 "머리에 혹 달린 저 늙은이!"라고 욕을 하는 장면까지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 수성노인의 역할은 손오공 일행을 도와주는 것뿐이지만 저팔계의 추태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수성노인의 선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길상과 장수, 행복의 전달자

우리나라의 경우 남극성에 관한 내용이 〈삼국유사(三國遺事)〉부터 확인되며 도교가 유행한 고려시대의 경우 수성노인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고려시대에 제작된 역시 시각 자료로는 찾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펼친 당시 고려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미 전해졌을 것이다.


이정 필 수성노인도(조선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에 이르면 수성노인이 단독으로 표현된다. 조선 중기에 활동한 김명국(金明國)과 이정(李定)의 수성노인도가 그 대표작으로, 긴 정수리와 흩날리는 수염, 아담한 몸집 등 중국 도교에서 출발한 도상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궁중미술인 요지연도(瑤池宴圖)와 민화 신선도의 수성노인은 장수를 상징하는 불로초, 혹은 복숭아를 들거나 사슴과 함께 등장해 '길상(吉祥)'의 염원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한 해의 복을 비는 '세화(歲畵)'와 생일 선물로 다수 제작됐다.

불교에 스며든 신선

수성노인은 불교미술에도 표현되는데 앞서 언급한 치성광여래도를 들 수 있다. 가장 이른 사례는 1861년에 제작된 서울 화계사(華溪寺) 치성광여래도로 현재 가평 현등사(懸燈寺)에 봉안돼 있다. 도교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수성노인은 어떻게 불교미술에 스며들게 된 것일까? 이는 두 도상이 모두 별이라는 공통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치성광여래의 전신인 '구요'는 중국까지 전해진다. 중국 또한 도교문화 속 점성술이 존재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용도로 사용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별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 인도에서 건너온 구요는 점성술과 합쳐져 인기 있는 신앙으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당나라 무렵에 이르면 도교에 스며든 구요 신앙이 불교와 합쳐진 파격적 이미지의 치성광여래가 탄생된다. 여기서 '치성광(熾盛光)'이란 '밤하늘을 비추는 밝은 빛'을 뜻하니, 북극성이 변신한 부처님에게는 안성맞춤의 이름인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치성광여래도를 살펴보면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같은 불교 도상과 자미대제(紫微大帝)와 칠원성군(七元星君)까지 도교 도상이 함께 등장하며 동양 속 천문관을 총망라하고 있다.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벽화 중 수성노인(조선 후기).

불교에서 수명을 담당하는 치성광여래와 도교에서 수명을 담당하는 수성노인의 조합, 종교를 초월한 환상의 커플이 아닐 수 없다. 두 신의 만남으로 인해 건강과 장수의 힘은 더욱 배가 되고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분위기를 해학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까지 줄 수 있으니,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수성노인은 백성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함과 더불어 희망과 웃음까지 전달해 주는 최고의 행복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불교미술로 표현된 수성노인은 이후 무속신앙까지 영향을 주어 무신도로 표현된 칠성신(七星神)에도 그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마치며

우리에게 별은 늘 희망의 존재였다. 조상들은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하늘의 별자리를 나침반 삼아 길을 찾았다. 어려운 상황에도 별을 보며 위안을 삼는 마음은 신앙이 됐다. 바로 수성노인이 이와 같은 관념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불교문화에 유입된 시기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친근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해 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현재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다. 바쁜 일상에 찌들고 지친 요즈음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수성노인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용덕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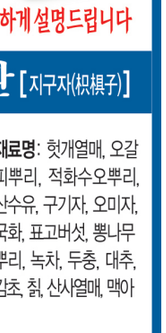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쉬었을 때, 전립선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287개 병증 목차 수록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 감초, 산사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 [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우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소리쟁이잎,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헛개환 [지구자(枳椇子)]

재료명: 헛개열매, 오갈피뿌리, 적화수오뿌리,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국화, 표고버섯, 뽕나무뿌리, 녹차, 두충, 대추, 감초, 칡, 산사열매, 맥아

간 해독으로 활력을
찾읍시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